

## 믿음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

창 18:22-32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기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욕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소돔성의 멸망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인 20-21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친히 알아보려고 가시던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냥 멸망시키면 됩니다. 굳이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지금 당장 멸망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도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땅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일, 자기 이익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늘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 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시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자기 집이 아닌 세계 열방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집이 아닌 한 도시,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중보 기도자를 찾고 중보 기도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부둥켜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교회에 아브라함과 같고,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중보

##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주문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단순히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어쩌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결혼생활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 결혼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를 구할 때 빨래할 사람, 밥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 분은 아마 평생결혼 못할 것입니다. 결혼생활이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파출부나 종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2 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그리고 그 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같이 있으면, 상대방을 잘 알게 됩니다. 같이 있지 않고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해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얻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가, 그 분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25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 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 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 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 의인 50 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죽일 수야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 50 명을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시킨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양 당당하게 이야기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의로우심에 대해 알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같이, 전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깊은 영적 비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성도의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중보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겸손과 용기라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프스(Thomas A Kempis)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용기입니다. 말하자면 겸손과 용기가 없이는 아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27 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기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도의 바른 자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땅에 엎드립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이런 태도는 “나는 티끌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감히”라는 단어는 용기를 드러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끌처럼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이 바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갈 수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죄가 없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사람은 양심은 있는데 지옥 갑니다. 우리들은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동안 죄를 짓고도 ‘감히’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이런 확신을 가진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거나 다른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일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기 없는 자입니다. 고민한다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새 염려하면서 기도는 안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과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부딪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죄를 들추어내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죄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50 명에서 45 명으로, 다시 40 명으로, 30 명, 20 명, 10 명으로 숫자를 줄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이 그 소돔성에 사는 것처럼, 자기가 당하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소돔성과 그 성에 사는 조카 롯을 건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기도했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모멸감을 맛보셨습니다. 죄 지은 것은 우리들인데 마치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뺨을 맞았고, 침 뱉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달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하는 수치를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대신 당하신 조롱, 대신 당하신 모멸감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수치를 감당하기 힘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남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넘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도시,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죄가 마치 내 것처럼 느껴져서 대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3 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며 떠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 장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 받았습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습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시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받았지만 롯은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습시다. 창 19:29 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습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그 멸망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말씀하십시다. 그렇습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자입니까? 누가 이 샌안토니오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